

서울시 인구의 건강수준 현황과 향후 추진과제

세계 각국은 국민의 건강수준과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러 형태의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방법이 인구집단에 대한 건강면접조사(Health Interview Survey)이다. 최근에는 도시화가 진전되고 도시기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도시에 대해서는 해당 도시의 건강수준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국제적인 비교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와 산하 25개 지방자치단체(구)는 전국 인구의 1/4이 밀집되어 거주하며, 사회경제적으로 그 중요성이 높고, 특히 풍부한 보건의료자원과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가운데 다양한 계층의 인구가 거주하는 대도시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건강수준과 건강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은 시민의 건강욕구에 대응하는 과학적인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모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전국 단위로 국민건강·영양조사가 3년마다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국가전체의 건강수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서울시 지역에 대한 통계산출은 별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결과를 서울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에서는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1997년에 『제1차 서울시민보건지표조사』에 이어 2002년도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03~2006년) 수립에 대비하여 2001년에 제2차 시민 보건지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서울시민 보건지표조사의 목적은 서울시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수준 및 의료이용수준, 건강행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주요 건강문제와 보건의료 서비스 요구도를 파악하고 서울시 전체 및 25개 각 구별 보건의료부문 중·장기 계획수립 및 전략개발, 사업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산출하는 데 두고 있다. 『2001 서울시민 보건지표조사』는 2001년 7~10월까지 3개월 여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조사대상은 서울시 전역에서 2,500개의 조사구를 선정하여 25,000가구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20,981가구(완료율 83.9%)의 가구원 67,049명에 대한 결과분석이 이루어졌다.

본고는 『2001년 서울시민 보건지표조사』의 주요결과를 1) 서울시민의 건강수준 현황과 정책과제, 2) 서울시민의 건강행위실천 수준으로 나누어 서울시민의 건강수준을 파악하고, 조사결과에서 규명된 건강문제의 해결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의 방향과 과제 및 건강행위실천수준을 제시하고자 한다.